

산 자 부 , 사 단 법 인 ‘국 제 IMS’ 설 립 허 가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제조관련 기술분야 국제 간 공동연구 컨소시엄인 ‘국제IMS프로그램’의 국제사무국인 사단법인 ‘국제IMS’의 국내 설립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IMS는 지능형생산시스템으로 21세기형 첨단생산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포드자동차, 보잉사, 도요다 등 700여 개 기업 등을 비롯 1000여 산·학·연기관이 참가했으며 5억 달러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된다.

한국은 지난해 열린 제18차 국제운영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IMS사업의 초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초대의장으로 선임된 삼성종합기술원 임 관 회장은 향후 국제IMS 프로그램 운영방향과 관련, “2006년에 차세대성장동력을 위한 제조혁신의 방향”이라는 비전 포럼을 개최해 한·독, 한·호 등 이미 추진 중인 양국 간 국제협력사업을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중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도 ‘국제IMS 프로그램’에 신규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 기 부 , 엔 지 니 어 링 기 술 진 흥 시 행 계 획 확 정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 명)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산·학·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업계에 대한 설명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5년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행계획(3차)을 수립·확정하였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전문인력 육성·관리’,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정보유통 체계구축’,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개척 지원’ 등 5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대학 교육의 강화,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핵심기술의 개발, 엔지니어링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확장·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의 확충 등이다. 과학기술부는 2005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시행 계획에 대하여 2600여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각 분야별 시행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과 기 부 , 국 가 연 구 개 발 성 과 평 가 강 화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 등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투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에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 연구개발 시행 주체는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업계획서에 제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5년 단위의 성과 평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성과 평가의 표준적 절차, 방법, 지표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평가방식도 국과위에서 전체 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탈피, 해당 부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토록 했으며 다만, 심층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특정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중 기 청 , ‘ 벤 처 기 업 육 성 촉 진 지 구 사 업 ’ 운 영 체 계 대 폭 개 편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전국 16개 시·도의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역 벤처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 혁신방안의 목표는 벤처촉진지구사업 운영 중 드러난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실시로 인한 벤처생태계 형성 미흡, 벤처기업과 지역산업과의 낮은 연관성, 연구개발 성과의 판매 연계 지원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벤처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벤처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 위주로 국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산·학 협력 네트워크 형성, 혁신역량강화 및 벤처기업 집적도 향상 50억을 배정함으

로써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큰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중심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지원단을 발족하여 기업애로기술 해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산·학·연 간 기술교류회 및 포럼활동 지원, 연구 성과를 생산·판매로 연계시킬 수 있는 협업생산체계 지원, 촉진지구 내 수출·금융·시험분석 등 유관지원 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기업지원 체계화 등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기술창업 및 일반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하여 촉진지구 입주가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의 필수 과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대폭 강화

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창업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이 겪는 공장설립, 경영·기술상의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거나 창업기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중전 50%) 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600만원(중전 35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한 금년에는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대행 업무도 지원 사업에 포함하고, 상담회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쿠폰제 경영 컨설팅 사업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40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하여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기본사항 입력→지원대상 결정 통보→쿠폰대금 납부→용역 지원)

신용보증기금, 네트워크론 협약 확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제일, 우리, 한국씨티, 산업, 경남, 부산, 광주, 전북은행, 농협, 수협 등 10개 금융사와 네트워크론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협약을 4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보는 현재 납품 주문서 방식의 네트워크론에 대해서만 보증 협약이 체결돼 있는 국민, 외환, 하나, 대구, 조흥, 신한 등 6개 은행에 납품 실적을 근거로 네트워크론을 취급할 때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국가차원의 CT육성 전담기구 마련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7일 진흥원 사옥에서 문화산업기술(CT) 개발과 육성을 전담할 'CT전략센터' (이하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지원기관들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콘텐츠기술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 총괄 지원하고, CT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장기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지원센터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2월 기존의 진흥원 콘텐츠기술팀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게임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통합했고, 영화진흥위원회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과도 기술개발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CT 핵심기술 개발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한국증권업협회, 벤처기업 감사의견 관계없이 3시장 진입 가능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 기업이 감사의견에 관계없이 제3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3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 아닌 적정·한정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은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현행 ▲일반기업부 ▲정규시장 이관부(정규시장 퇴출 종목) 등 2가지로 나뉘어 운영되던 소속부 제도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벤처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소액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전 조치다.

여 성 벤 처 협 회 , 신 규 회 원 4 개 사 맞 아

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는 한국인식기술 등 4개사를 신규회원으로 맞았다.

먼저 한국인식기술(대표 송은숙)은 10여 년 동안 문자인식기술을 개발해온 업체로서 국내 최고의 OCR기술을 기반으로 'Hi-글눈'을 개발한 바 있다. 2004년 3월에는 명함인식 프로그램인 'Hi-Name 2.0'을 출시하였고, 올해에는 개인용 명함인식 프로그램 'Hi-Name 3.0 Pro'와 기업용 솔루션인 'Hi-Name 3.0 Enterprise' 등을 출시했다.

또 다른 신규회원사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2000년 서울대병원 등 국내 유명 병원 전문의들 주축으로 설립된 제대혈(탯줄혈액)은행 사업 및 제대혈 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제대혈 보관 및 이식 사업 분야에서 국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위지(대표 김양희)는 21세기 지식집약사회를 선도하는 최고의 Eduvider를 지향하는 e-러닝 전문기업으로서, 자체 보유한 기술개발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전문업체이다.

마지막으로 피지라이프(대표 권영미)는 미래지향적 환경 산업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소재인 토르마린을 직접 수입, 여러 천연광석들로 분말화하여 피지 음이온석을 발명,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중이며, '피지 음이온석 매트'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재배한 천연 칼라원사, 천연 칼라면포 등을 수·출입 하며 국내 유통업체의 선두 주자로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IT코리아-KIECO 2005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통신 종합전시회 'IT코리아-KIECO 2005'를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개 요

- 일 시 : 2005년 4월 26 ~ 29일(4일간)
- 주 최 :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사
- 후 원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 장 소 : 코엑스 태평양홀

출 품 대 상 및 신 청

- 출품대상 :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홈네트워크, 유무선 통신기기,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정보가전, 반도체, 부품 등
- 출품신청 : 선착순 마감
- 부대행사 : 미국 대형유통업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시참가업체의 신제품·신기술세미나, IT세미나 및 포럼(상기 부대행사는 전시참가업체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임)

접 수 문 의

한국무역협회 전시 컨벤션팀

- Tel : 여중욱 대리 02-6000-5279 / 김선정 대리 (5058)
- Fax : 02-6000-5823~4

한국경제신문사 전시 사업팀

- Tel : 장병석 과장 02-360-4516 / 이석문 대리 (4515)
- Fax : 02-360-4503



▲ 2005년 4월 7일 한국경제 A3면

정부는 4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4차 대외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촉진키로 하고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를 육성대상으로 선정했음을 보도한 기사



▲ 2005년 4월 7일 전자신문 21면

정부가 벤처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자금공급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당초 계획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2분기부터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보도한 기사

대 덕 에 기 술 벤 처 3000개 육 성
대덕 연구개발(R&D) 특구가 향후 10년 내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대덕지역을 ▲첨단기술기업 3000개 ▲외국R&D센터 20개 ▲연간 기술료 수입 5000억원 ▲매출액 30조원 ▲나스닥 상장기업 수 20개를 보유하는 연구 및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해외펀드 등을 활용해 2009년까지 1000억원, 2012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한 뒤 벤처기업과 연구소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특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해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한 ▲선진형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선진형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벤처투자펀드(과기진흥기금, 해외펀드) 지원을 통한 벤처금융 활성화, 입주용지 확충, 첨단기술의 지속적 공급,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전문 경영역량 강화, 전방위 마케팅 지원 등의 요소를 갖추기로 했다.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해외펀드 외에도 향후 발행될 '과학기술 국채'의 일부를 끌어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만을 위한 채권 발행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까지 5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단지 개발, 외국인을 위한 교육·의료·주거 환경 조성, 국제화 종합지원시설(과학기술 창조도시 전당)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덕특구 지원체계는 제2, 제3 지역의 특구육성을 위한 모범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덕을 혁신클러스터의 발원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기본적인 정부 역할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의 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대덕특구에 입주하면 다량의 양질의 자금을 비롯해 건물, 마케팅, 관료, 경영능력 보완 등의 종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